

『大方廣佛華嚴經行願品神衆合部』變相畫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Byonsangwha of Sutra
“Buddhabhadra plus gods of heaven”

權熹耕(Kwon, Hee-Kyung) *

◁ 목 차 ▷

- | | |
|---------------------|----------|
| 1. 서론 | 사경의 성격규명 |
| 2. 사경의 형상과 품질 | 5. 변상화 |
| 3. 발원문 | 6. 결론 |
| 4. 「대방광불화엄경행원품신중합부」 | |

< 초 록 >

이 사경은 발원문에서 忠定王 2년(1350)에 施主者인 延安郡 夫人 李氏가 아버지 李思溫과 어머니 秦氏, 남편 金碩의 명복을 빌기 위해 시주하여 제작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高麗史』 기록들에 의하면 이씨의 아버지 李思溫은 忠宣王 당시 密直司로서 고려왕실에 명망 있는 宰臣이었으나, 金周鼎과 함께 賄賂로 유배당하였고, 남편 金碩은 司鄉이라는 기록으로 알 수 있듯이 환관으로 충숙왕이 왕위에 오르는데 역할을 해 이등 공신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그러므로 이 사경은 비록 그가 죽은 후라 할지라도 친원계의 환관 金碩의 재력에 의해 제작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前面에는 「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의 변상이 4페이지에 걸쳐 그려져 있고, 이어 「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과 「大方廣佛華嚴經壽量品」이 기록되어 있으며, 背面에는 「大方廣佛華嚴經世主妙嚴品」第一이라는 題下에 菩薩, 諸天部, 神將 및 善知識의 菩薩, 比丘(優婆塞)·優婆夷 등이 名號와 함께 그려져 있는 사경변상화에서는 고려사경의 변상화 중에서 가장 독특한 양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고려의 사경변상화의 다양성이 바로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사경변상화와 더불어 「大方廣佛華嚴經行願品神衆合部」라는 經典表題를 연결시켜 주목하지 아니 할 수 없었다. 이 사경은 표제만 볼 때는 80화엽의 「入法界品」의 내용과 신중을 합본한 경전이라고 쉽게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경은 「入法界品」의 내용과 변상, 神衆圖물론, 「大方廣佛華嚴經世主妙嚴品」제1권에 나타나는 菩薩과 「華嚴經」의 핵심 내용인 「入法界品」의 55선지식까지 다양하게 그려져 있으며, 이들 각각의 도상 아래에다 명호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大方廣佛華嚴經行願品神衆合部」라는 표제를 부친 것에 주목하지 아니 할 수 없다. 고려왕실에서는 몽고침입 이후 神衆道場 혹은 華嚴神衆道場이 자주 열렸다는 『高麗史』기록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듯이 왕실에서는 신중사상이 호국불교와 깊이 연관되어 있었고, 민간에게는 祈禱·除災의 사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중사상이야말로 후기 고려사회에 얼마나 크게 성행 했는가를 이 사경표제가 알리고 있다. 또한 충열왕 이후 고려불교가 염불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신이적이고 신주적인 사상이 고려사회 전체에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大方廣佛華嚴

* 대구가톨릭대학교 미술대학 미술학부 예술학전공 (hkkon@hanmail.net)

접수일: 2004년 11월 30일 최초심사일: 2004년 12월 1일 심사완료일: 2004년 12월 15일

經」의 핵심내용인 「입법계품」은 구법의要諦로서 신앙의 중심에 있었고, 신중사상은 복을 빌고 재앙을 면하게 해 달라는 원을 성취하기 위해 또 다른 의미에서 신앙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이 사경의 표제를 통해 엿 볼 수 있다는 것도 밝혔다.

요어 : 대방광불화엄경, 변상화

<ABSTRACTS>

By reading of the praying sentence of Buddhahadra sutra it is possible to know that this sutra was manufactured in 2nd year of king Chungjeong(1350) in order to pray for heavenly bliss of father Lee Sa-on, mother Mrs Jin and husband Kim Seok by a benefactor, madam Lee of YeonAn county.

In the records of Koryosa(history of Koryo) her father was a popular minister of Koryo kingdom but he was exiled to Imjo with Kim Ju-Jeong. Her husband Kim Seok was recorded as Sahyang(司鄉) to know that he was a eunuch but he promoted to second grade meritorious retainer because of his role for enthroning of king ChungSuk. Therefore, it is possible to know easily that this sutra was manufactured by the wealth of Kim Seok, a pro-Yuen eunuch eventhough after he was dead.

On the front side of the sutra the Byunsangwha(picture explaining the content of preach) of Gandavyuha-sutra(入法界品) in Buddhahadra(大方廣佛華嚴經) was drawn through 4 pages and in succession Gradavyuha-sutra in Buddhahadra was recorded. On the back side of the sutra Bodhisatva(菩薩), whole parts(諸天部) and divine generals(神將)of heaven, nun(優婆塞) and monk(優婆夷) etc. were pictured with their names. Because of above reasons this sutra should be known to have very special unique style among the Koryo sutras.

Specially we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title of sutra "Buddhahadra plus gods of heaven (神衆)." Judging from only the title, it is easy to think that this sutra is one bound volume binding Grandavyuha-sutra in Buddhahadra and thought of gods of heaven. But it is not true. In this sutra not only gods of heaven but also the picture of kalyanamitra, which are the heart thought of Bodhisatva and Buddhahadra shown in chapter 1 of Grandavyuha-sutra were drawn, too. Under the picture the names were recorded.

Nevertheless the use of the title, "Grandavyuha-sutra plus gods of heaven" would be related some reasons that the thought of gods of heaven should be deeply connected with Buddhism for defense of fatherland and would be related to the thought of praying fortune and protecting misfortune in the people, when we judge from the records of Koryosa (History of Koryo) describing that Buddhist seminary of gods of heaven or gods of Buddhahadra had been often held since Mongolia invasion. And after king Chungryol Koryo Buddhism trended toward the religion of praying to Buddha and the thought of strangeness and sorcery became full in whole society. In this kind of view point Grandavyuha, the heart thought of Buddhahadra stood in the center of religion as the essential point of seeking after truth, and the thought of gods of heaven took a central position of religion in other meaning in order to achieve the desires of praying fortune and protecting misfortune.

In this paper it is clarified that by the understanding the title of Buddhahadra sutra the contents described above would be postulated.

Keywords : Buddhahadra, Byunsangwha

1. 서론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至正 10년에 제작된 「華嚴經行願品神衆合部」는 이미 여러 차례 학계에 소개된 바 있다.¹⁾ 그러나 부분적인 견학에만 그쳤던 이 「華嚴經行願品神衆合部」에 대해 전체를 살살이 검토하는 본격적 조사의 행운을 가진 것은 1996년 겨울방학에 이루어 졌었다.

가장 독특한 양식을 나타내고 있는 이 사경변상화의 전체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소개 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여겨 變相畫 전체를 다시 소개한다는 점에서 이 논문을 쓰고자 했다.

2. 寫經의 形狀과 品質

前面에는 「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과 「大方廣佛華嚴經壽量品」이 기록되고 있으며, 背面에는 「大方廣佛華嚴經世主妙嚴品」第一이라는 題下에 각 페이지마다 菩薩, 諸天部, 神將 및 善知識의 菩薩, 比丘(優婆塞)·優婆夷 등이 名號와 함께 그려져 있는²⁾ 이 사경은 靑紙金泥의 帖子本이며, 크기는 세로 28.7센티, 가로 11.1센티이다.

表紙는 金·銀泥로 연화당초문을 그려진 가운데 「大方廣佛華嚴經行願品神

1) 昭和 48년에 출판된 中吉 功編 「海東の佛教」, 國書刊行會, p249-265에 언급한바 있으며, 중앙일보의 韓國의 美 시리즈 7, 【高麗佛畫】 도판 60 및 도판설명. p255.에서는 모현행원품의 변상화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었으나, 사경의 경전내용중에 그려진 각 신중도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다.

1996년 겨울방학에 「華嚴經行願品神衆合部」의 조사촬영이 있었고, 이때 촬영을 도운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었던 제자 孫姝延군에게 「至正 10년발원 고려사경 「華嚴經行願品神衆合部」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석사 논문을 쓰게 하여 2000년 2월에 석사학위를 받게 했다. 손군은 이 사경이 체제와 제작된 시대의 사상적 배경을 비롯하여, 서체와 변상화의 양식적 특징에 이르기 까지 상당히 열심이 연구하였으나 석사 논문이라는 약점 때문에 많이 읽혀지지 않아, 이 사경의 변상에 독특한 양식이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2) 단독의 도상 엄밀한 의미에서는 변상이다.

衆合部』이라고 금니로 표제를 쓰고 있다.

變相畫는 전면과 배면에 전부 그려지고 있는데 전면에는 4페이지에 걸쳐 그려지고 있으며, 배면에는 2페이지에 걸쳐 그려져 있고, 상술한 바와 같이 각 페이지마다 菩薩衆, 神衆, 5善知識이 명호 위에 그려져 있다.

경전은 전체적으로 上下에 이중의 패선을 긋고 있는데, 위쪽에는 太線·細線, 아래쪽에는 細線·太線으로 장식되고 있는데, 전면은 1페이지에 6행씩 쓰여지고 있으며, 背面은 1페이지에 5행씩 쓰여지고 있다. 배면의 맨 끝에는 「義相和尚一乘發願文」이 기록되고 있으며, 그 뒤로 이어서 이 사경의 발원문이 기록되고 있다.



<도 1> 의상화상일승발원문



<도 2> 발원문

3. 발원문

이 사경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먼저 발원문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大方廣佛華嚴經世主妙嚴品」에 이어 쓰인 신라의 최고 승려인 義相和尚의 一乘發願文이 끝나는 부분에서 1행을 띄우고 이어서 쓰여진 발원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至正十年庚寅二月日誌

施主延安郡夫人李氏 慈行敬受

亡 禍 司 鄉 金 碩

亡 母 秦 氏

亡 父 宰 臣 李 思 溫

발원문을 통해 이 사경은 忠定王 2년(1350)에 제작되었고, 施主者는 延安郡 夫人 李氏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경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발원문이 경전에 이어 바로 지정 10년으로부터 시작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제작 년 월 일이 먼저 나오는 것으로 볼 때 경전과는 달리 발원문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시주자이며, 발원자이기도 한 이씨는 亡禍보다 亡父를 맨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지 아니 할 수 없다. 그녀는 먼저 죽은 아버지의 영혼을 달래고, 다음으로 죽은 어머니의 영혼을 달렸으며, 그 다음으로 남편의 영혼을 달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씨가 남편보다는 친정 부모를 더 소중이 여기는 근거를 바로 이 사경의 발원문 속에서 찾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찰은 잠시 뒤로 미루고, 먼저 이씨의 아버지 李思溫과 남편 金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발원문에서 시제자이며, 發願者이기도 한 李氏는 그의 아버지를 宰臣이라고 밝히고 있어, 李思溫이 재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高麗史』에 의하면 이씨의 아버지 李思溫은 密直司를 지낸 인물이었고,³⁾ 남편 金碩은 忠肅王 때 이등 공신에 오른 인물이다. 이와 같은 가족의 배경으로 볼 때, 이씨부인은 충분히 「華嚴經行願品神衆合部」과 같은 사경을 제작할 수 있는 富를 지니고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高麗史」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씨부인의 아버지 李思溫이라는 인물은 이와 같은 화려한 감지금니의 사경을 발원 할 수 있게 한 재력의 배경이 아니었으며, 이씨부인의 남편 金碩의 축재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高麗史 列傳 제17권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高麗史」살펴보면, 그의 아버지 李思溫에 대해 忠宣王 5년 2월조에 元이 金溥 金周鼎 과 李思溫을 臨洮에 杖流 했다⁴⁾는 내용이 간단하게 기록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高麗史」列傳 金周鼎조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忠宣王이 元에 머물면서 고려로 돌아가지 않자, 元 皇帝와 太后가 고려로 돌아가기를 詔하였으나, 그래도 돌아가지 않음으로 元이 해마다 布 10만필 米 400斛 등 조공을 무겁게 내리자, 金周鼎이 密直司 李思溫과 상의하여 왕이 고려로 돌아가지 않음은 權漢功 崔誠之 朴景亮 때문이라 하여 3인의 죄상에 대해 수 백 명이 서명케 하고, 이를 태후에게 고함으로써 이들 3인에게 獄이 내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忠宣王과 이들 3인이 다시 태후에게 그들의 입장을 고하니, 權漢功은 뇌물로써 죄를 면하였지만, 元은 金周鼎 李思溫에게는 결국 臨洮로 杖流하니, 국인이 憤嘆하였다는 내용이 실려 있어⁵⁾ 李思溫은 忠宣王 당시 密直司로서 고려왕실에 명망 있는 宰臣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高麗史」列傳 金怡조⁶⁾와 朴景亮조⁷⁾ 權漢功조⁸⁾에 반복하여 실고 있어,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던가를 짐작케 한다. 다만 列傳 金怡조에서 이 사건이 忠宣王 5년의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씨부인의 남편 金碩은 忠烈王 때 判事이었음을 「高麗史」列傳 印候 承 且 조⁹⁾등에 의해 알 수 있으며, 「高麗史」世家 忠肅王 14년 11월 戊子조에 의하면 그가 典醫史의 典醫副正으로 이등 공신에 올랐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으로 그가 典醫史의 從4品인 관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蒙女의 아들로써 忠宣王의 제2왕자였던 宜孝(후일 忠肅王)가 간신들에 의해 왕위계승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충절로서 왕위를 계승도록 지킨 공으로 여러 사람

4) 高麗史 世家 卷34권 忠宣王 5년조

5) 高麗史 列傳 卷17권

6) 高麗史 列傳 卷21권

7) 高麗史 列傳 卷37권

8) 高麗史 列傳 卷38권

9) 高麗史 列傳 卷36권

들과 함께 2등 공신에 오른 인물이다.¹⁰⁾ 그러나 이런 기록보다는 발원문의 司鄉 金碩에 더 유의 하지 아니 할 수 없다. 「高麗史」列傳 第三十五 「宦者」조에 의하면 帝國大長公主가 元 世祖에게 환관을 바친 후, 수십 년이 되지 않아 환관들의 수가 불어나, 大司徒 혹은 平章政事가 된 자도 있으며, 이후 환관들은 모두 院使 司鄉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그가 환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宦者조 환관들이 第宅과 車服이 鄉相에 비기게 되었고, 忠宣王에 이르러서는 왕이 三宮에 자주 들어갔는데, 환관들은 원의 환관들과 서로 친근하게 지내면서 많은 諷諷이 했으며, 이들 중, 원의 환관들과 가장 친하게 오가는 자들을 골라 忠宣王은 모두 君에 봉하였다는 기록도 있어, 그들의 세력이 얼마나 막강 하였던가를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기록을 종합 해 볼 때, 金碩 환관으로서 忠肅王을 왕위에 올리는데 한 몫을 할 만큼 親元勢力으로 상당한 재력가였다는 사실을 짐작 할 수 있다. 사경의 발원문을 통해 볼 때, 재신의 딸이었던 이씨가 환관의 아내가 되었던 것은 李思濫이 유배당한 일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죽은 남편과 더불어 망인이 된 친정부모의 영혼의 극락왕생을 함께 빌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남편보다 친정부모를 앞에 기록하기가 어려웠으므로 발원문을 왼쪽으로부터 기록하여 경전이 끝나는 부분에서 볼 때 남편의 명복을 먼저 빈 것 같이 보이는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사경발원문에는 이씨가 시주자로서 기록되고 있지만 그녀가 시재자인 동시에 발원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華嚴經行願品神衆合部」사경의 성격규명

이 사경이 다른 사경과 다른 점은 상술한 바와 같이 전면에는 「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과 더불어 「大方廣佛華嚴經壽量品」을 수록하고, 背面에는

10) 高麗史 志 百官 2.

「大方廣佛華嚴經世主妙嚴品」第一의 菩薩, 諸天部, 神將 및 선지식의 보살, 比丘(優婆塞), 優婆夷 등의 명호를 기록하고 위에다 그림을 그려 넣고 있어, 편집구성상으로도 독특하다는 점을 들 수 있으니 사경의 표제는 「華嚴經行願品神衆合部」라는 적고 있고, 내표제는 「大方廣佛華嚴經行願品神衆合部」라고 기록하고 있다. 현존하는 고려의 사경 중에는 「大方廣佛華嚴經行願品」이 몇 권 있으나,¹¹⁾ 「大方廣佛華嚴經行願品」과 「大方廣佛華嚴經世主妙嚴品」第一의 내용을 합본하여 「華嚴經行願品神衆合部」라고 경전의 표제를 부친 예는 이 사경이 처음이다. 물론 고려사경 중에는 직지사 聖寶博物院 소장의 白紙金泥의 사경과 같이 「金剛般若婆羅蜜茶經」과 「法華經」의 「觀世音菩薩普門品」제 25권이 합본된 사경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사경들은 대개 표제가 합본된 「金剛般若·普門品發願合部」라는 명칭이 쓰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 사경의 경우 「大方廣佛華嚴經行願品世主妙嚴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華嚴經行願品神衆合部」라는 경전표제를 사용하고 있어, 주목하지 아니 할 수 없다. 「大方廣佛華嚴經行願品」의 내용 중에도 菩薩衆, 諸天部, 神將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배면에 명호와 함께 그려지고 있는 그림이 神衆에만 限해 있는 것도 아니고, 菩薩衆, 諸天部, 神將 및 선지식의 比丘(優婆塞)·優婆夷 등이 그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神衆을 앞장세운 점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다. 특히 菩薩衆이나 神衆은 「大方廣佛華嚴經世主妙嚴品」第一의 내용 중에 나타난 것을 그대로 싣고 있어, 반드시 「大方廣佛華嚴經行願品」에 나타나는 신중들만이 아니라 신중신앙에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華嚴經行願品神衆合部」라는 표제가 어떤 연유로 붙이게 되었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면 독특한 體制로 쓰여진 이 사경의 성격도 보다 분명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전의 체제로 볼 때, 당연히 「大方廣佛華嚴經行願品」에 대한 고찰이 앞서야 하겠지만, 「大方廣佛華嚴經行願品」에 대한 고찰은 잠시 뒤로 미루고

11) 충숙왕 3년(1334) 제작의 호림박물관소장본.

「華嚴經」의 祈福思想과 除災思想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는 神衆信仰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華嚴經」의 神衆들은 바로 祈福과 除災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아니 할 수 없다. 明王이 힌두의 신들에서 유래 되었다면 天은 바라문교의 신들에서 유래된 신들로서 불교의 신들로 습합 되면서 불교의 수호신이 된 것이다.¹²⁾ 원래는 八部神衆을 비롯한 天部の 모든 신들은 인간이 선행을 쌓아 도달할 수 있는 깨달음의 세계의 위계를 나타내는 것이었으나, 후대에 이르러 「華嚴經」의 神衆들은 신비적인 힘을 가진 수호신으로 현세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祈福과 모든 재앙과 재액을 막아주는 除災의 신들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신중들은 염불신앙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신중신앙은 고려왕실과도 상당히 깊이 연결되어 있었으니, 일찍이 肅宗 6년에 소나무에 벌레가 먹었는데 神衆道場을 열어 이를 가시게 했다¹³⁾는 「高麗史」 기록으로도 충분히 짐작 할 수 있다. 또한 이 기록으로 숙종 당시에는 神衆信仰은 祈福 보다는 재액과 더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중신앙은 고려가 원의 침략을 받은 후부터 왕실 혹은 최씨 무신정권에 의해 除災 연결 되어 抗元의 수단으로 神衆道場과 華嚴神衆道場이 자주 설치하여 졌었다는 것을 「高麗史」 기록이 말해 주고 있다.¹⁴⁾ 「高麗史」 기록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면 高宗 초기에는 주로 神衆道場을 設하였지만 高宗 후기에 이르면 華嚴神衆道場을 자주 設하였음을 발견 할 수 있다. 이들 기록에서 神衆道場과 華嚴神衆道場을 구별하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다. 이들 神衆은 6화엄의 신중들 보다 80화엄에서 身衆神, 足行神, 主城神, 主山神, 主林神, 乾闥婆王 등 6신중이 더 추가되었는데,¹⁵⁾ 이 사경에서도 이들 신들이 그려지고 있어, 상세히 내용을 살펴지 않아도 도상만 보고도 80화엄의 신중들이

12) 錦織亮介, 「天部の佛像事典」, 東京美術 昭和58년 3-7.

13) 「高麗史」志 五行 二조.

14) 神衆道場은 高宗4년에 1회, 高宗6년에 1회, 華嚴神衆道場은 高宗 31년에 2회, 高宗 38년에 1회, 39년에 2회, 40년에 3회, 41년에 3회, 42년에 2회, 元宗 9년에 1회. 도합13회 설해졌다.

15) 李道業, 「華嚴經思想研究」, 民族史, 80.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고려에 80화엄이 성행한 시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三國遺事」의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조에서는 의상이 당에서 돌아와 낙산 근방의 해변 굴속에 觀音眞身이 머물었다고 하여 落山이라고 하는데, 이는 서역의 寶陀洛伽山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를 달아 설명하고 있다. 寶陀洛伽山이란 80화엄 부분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臺山五萬眞身」조의 내용으로 이미 一然 시대에 80화엄이 이미 널리 유통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으니,¹⁶⁾ 이 사경이 제작 되던 忠定王 때는 80화엄이 보드 크게 성행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¹⁷⁾

元宗조에 이르기 까지 왕실에서 設해지던 華嚴神衆道場은 忠烈王에 이르던 「高麗史」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없게 된다. 원에 대한 항쟁의 명분이 사라지면서 忠烈王이후 왕실에서 華嚴神衆道場은 設하여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왕실을 통해 열심히 회구되었던 신중신앙은 고려의 집권 상류사회에서 그대로 유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이 사경이 증명해 주고 있다. 특히 왕실과 깊은 유대를 가지고 있던 金碩의 집안에서 제작된 이 사경이 60화엄이 아닌 80화엄의 「入法界品」이란 점은 이 시기 고려 사회의 유행되고 있었던 華嚴神衆은 80화엄에 더 연결 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인사의 화엄경판화의 년대도 이와 더불어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사경에서 보여주는 신중신앙은 재액이라는 측면 보다는 天의 세계에 대한 본래적인 의미의 「덕행을 쌓아 사후의 천상에 태어 날 수 있게 하고자」하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으니 「延安郡夫人李氏 慈行敬受」라는 기록으로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祈福·除災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신중신앙이 불교의 구법사상의 중심에 있는 「入法界品」에 어떻게 연결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6) 상계서, 350-352.

17) 상계서, 350.

「普賢行願品」화엄경 80화엄의 마지막 장인 제60권부터 80권에 이르기 까지 설해지고 있는 「入法界品」 전체를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협의의 의미에서는 40화엄인 貞元本에서 보현보살에 의해 설해진 내용을 일컫는다.

「入法界品」은 「十地品」과 더불어 1세기 내지 2세기경에 성립 되었다고 보며, 지금도 산스크리트어로 원전이 유존 되고 있을 만큼¹⁸⁾ 초기 불교사상을 대표한다.

그러므로 善財童子가 55번에 걸쳐 53 선지식에게¹⁹⁾ 법을 구한 내용을 실은 「入法界品」은 「華嚴經」의 핵심적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더 엄밀히 말하면 「華嚴經」이란 「入法界品」 「十地品」을 근간에 두고 몇 가지 단행본을 앞뒤로 연결 시켜 편집된 경전이다.²⁰⁾

특히 선재동자가 55번째 만난 보현보살에게는 10가지 불가사의한神通력이 있어 장엄의 세계로 들어 갈 수 있게 된다는 내용으로 종교적인神通력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종교적인神通력이나 신이적인 사건이다.

이러한 「入法界品」과 신중신앙을 연결한 연유에 대한 해답을 우선 이 사경의 말미에 기록된 「義相和尚一乘發願文」에서 찾을 수 있다.

義相은 元曉와 함께 신라화엄의 鼻祖로서 浮石寺를 근본 도량으로 화엄교학을 펼쳐 나간 일에 대해 세삼스럽게 언급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의상에 대한 신이적인 사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기록이 바로 「三國遺事」의 「義相傳教」조라 할 수 있다. 「義相傳教」조의 내용은 終南山 至相寺의 智儼을 만나 화엄경을 배우게 된 내용이나 화엄교학에 전념한 내용, 화엄십찰에 전교한 내용 등이 주가 되지만 의상이 허공을 걸어 다니며 탑돌이를 한 내용 등은 대단히 神異的이다. 「義相傳教」조에서 보여주는 의상과 화엄교학에 대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洛山二大聖 觀音·正趣, 調信」조에서는 義相이 靈戒 후 7일 만에 座具를 새벽 물에 띄웠더니 龍天八部의 시종들이

18) 상계서, 「新譯華嚴經」, 東國大學校 譯經院, 6.

19) 문수보살의 권유로 구법의 행각을 시작하여 만났고, 제일 첫 번째와 54번째 文殊舍利菩薩은 두 번 만났으므로 55번에 53명의 선지식을 만난 것이다.

20) 전계서, 「華嚴經思想研究」, 民族史, 376. 法頂 「新譯華嚴經」, 東國大學校 譯經院, 6.

굴속으로 안내해 그곳에서 여의보주 한 다발을 바친 내용이나, 座上의 친견한 관음이 의상에게 산파루에 한 쌍의 대나무가 솟아 날 것이니 그곳에 불전을 지으라는 내용,²¹⁾ 정취보살에 대한 내용 등에서 80華嚴의 불가사의한 공덕과 위력에 대한 깊은 신앙을 보이고 있어, 忠烈王 이후 고려사회에 만연해 있던 神異의이고 神呪的인 사상을 「三國遺事」를 통해 충분히 짐작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생각 해 볼 때 「義相和尚一乘發願文」을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이 경전은 화엄교학의 비조인 의상을 앞세우면서도 영험이라는 신이적인 세계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신이적인 사상은 祈福과 除災의 중심에 있는 신중신앙이 화엄교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入法界品」과도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짐작 할 수 있다.

5. 變相畫

(1) 「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變相



<도 3> 대방광불화엄경행원품 변상

21) 특히 「三國遺事」의 쌍 죽의 기록은 충렬왕 이후 제작된 수월관음의 뒤쪽에 쌍 죽으로 나타나고 있어, 「三國遺事」와 의상의 華嚴學의 관계를 짐작케 한다

변상화의 가장자리는 태선·세선, 금강저·갈마, 세선·태선·세선으로 장식 되어 이 사경의 전면에는 「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이 사성되어 있는 만큼 변상화도 보현행원품의 변상이 그려져 있는데,²²⁾ 보현보살과 그 아래쪽에 꿰어얹은 선재동자를 중심으로 화면은 거의 이등분된 듯한 구성이다.

「華嚴經」은 다른 경전들과는 달리 佛이 민중을 교설하는 것이 아니라 보살들이 佛에 대해 교설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入法界品」은 普賢菩薩이 佛에 대해 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경에서는 설법자인 보현보살을 한 가운데 가장 크게 그리고 있으며, 55선지식을 찾아다니다가 마지막에 보현보살에 의해 장엄의 세계로 이끌려간다는 「入法界品」의 주인공인 선재동자가 보현보살의 아래쪽에 무릎을 꿇은 형상으로 그려져 있다. 보현보살의 뒤쪽으로는 보리수가 두 그루 그려져 있는데, 그 한가운데 방형 속에 普賢菩薩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보현보살의 위쪽에는 보현보살로부터 뻗어 나간 구름을 탄 보살들과 비구가 그려져 있다. 보살들이 그려진 배경은 금니의 횡선 사이사이로 연화가 그려져 있다. 이들 보살들 사이에는 운문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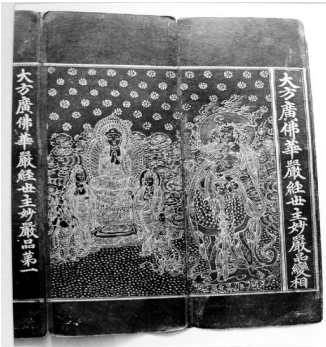
아래쪽의 선재동자 양 옆으로 보현보살의 교설을 듣는 보살들이 4구 그려져 있고, 그 좌우로 각각 5구의 보살이 그려져 있다. 이는 지상에서 선재동자가 방문한 보살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 보살들이 그려진 배경 처리는 점문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보살들 아래쪽은 운문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선재동자와 21구의 보살이 본존인 보현보살을 향해 예배하는 구성으로 그려진 것이다.

운문의 형식에서 14세기 중반의 양식적 특징이 두드러진다.

22) 「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의 사경 變相은 이 「大方廣佛華嚴經行願品神衆合部」이외에도 忠肅王 복위 3년(1334)에 제작된 湖林博物館의 「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과 忠肅王 복위 6년(1337)에 제작된 湖巖美術館의 소장의 40화엄인 貞元本 「大方廣佛華嚴經」 제31권이 있다. 湖林博物館의 「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은 「大方廣佛華嚴經行願品神衆合部」과 거의 같은 모티브로 그려져 있으며, 湖巖美術館의 소장의 「大方廣佛華嚴經」 제31권은 정원본의 40권 중 제31권의 내용을 그린 것으로 바로 44번째 친견한 偏友童子和 45번째 친견한 善知衆藝童자가 그려져 있다. 이러한 변상화로 미루어 볼 때 이 貞元本은 각권마다 변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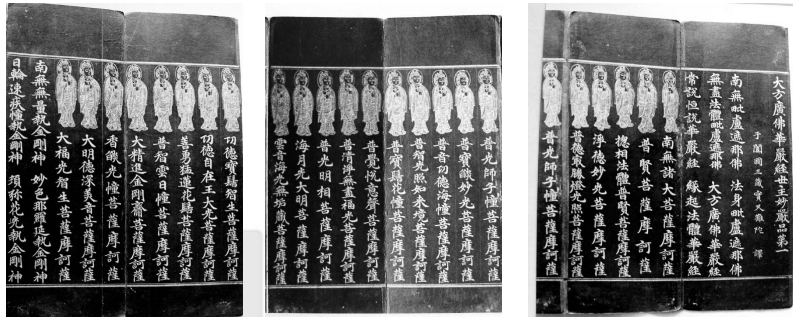
(2) 「大方廣佛華嚴經世主妙嚴品 變相



<도 4> 배면의 세주묘엄품1권 변상

제1페이지에는 신장상이 크게 그려져 있으며, 제2페이지에는 삼존도가 그려져 있는데, 여래는 「華嚴經」의 主尊인 毘盧遮那佛이다. 신장상과 삼존상이 그려진 위쪽은 연화문이 그려져 있고, 아래쪽은 점원문으로 가득 차 있다.

(3) 菩薩·神衆·善知識의 菩薩, 優婆塞, 優婆夷



<그림 5> 보살중

가) 菩薩衆

「大方廣佛華嚴經世主妙嚴品」제1권이라는 內表題에 이어 한 페이지에 5구씩 23驅의 菩薩群이 그려져 있다. 그림의 아래쪽에는 보살의 명호가 적혀 있는데 명호 아래쪽에다 「摩訶薩」을 부치고 있다. 마하살이란 크다는 뜻이 있어 여기에 나타난 보살들이 전부 큰 보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大方廣佛華嚴經世主妙嚴品」제1권 경전에 나타난 내용 중 마가다국의 아란야의 범보리도량에서 처음으로 깨달았다는 경전의 내용으로부터 「大方廣佛華嚴經世主妙嚴品」제1권 여러 내용은 생략하고, 「南無毘盧遮那佛 法身毘盧遮那佛



<도 6> 보살중 세부도

無盡法體毘盧遮那佛, 大方廣佛華嚴經 常說恒說華嚴經, 緣起法體華嚴經」이라고만 적고 있으며, 이어서 菩薩衆의 명호를 아래에 쓰고 그 위에다 각각의 菩薩衆의 도상을 그리고 있다.

제일 먼저 南無諸大菩薩摩訶薩이라고 기록하고 약간 향좌로 몸을 틀고 있는 보살상을 그리고 있다. 「나무」란 귀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리도량을 에워싸고 있는 47종의 여

러 큰 보살들을 전체적으로 이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菩薩衆普賢菩薩摩訶薩이 그려지고, 揚相法體普賢菩薩摩訶薩 淨德妙光菩薩摩訶薩이 그려지고 있으나, 「世主妙嚴品」에서는 두 보살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²³⁾

이들 두 보살에 이어 最勝澄光照菩薩摩訶薩, 普光師子幢菩薩摩訶薩, 普寶斂妙光菩薩摩訶薩 普音功德海幢菩薩摩訶薩, 普智光照如來境菩薩摩訶薩, 普寶花(華)幢菩薩摩訶薩, 普覺悅意聲菩薩摩訶薩, 普清淨無盡福光菩薩摩訶薩, 普光明相菩薩摩訶薩, 海月光大明菩薩摩訶薩, 雲音海光無垢菩薩摩訶薩, 功德寶髻智生菩薩摩訶薩, 功德自在王大光菩薩摩訶薩, 善勇猛蓮花髻菩薩摩訶薩, 普智雲日幢菩薩摩訶薩, 大精進金剛鬘(齊)菩薩摩訶薩, 香焰光幢菩薩摩訶薩, 大明德深美音菩薩摩訶薩, 大福光智生菩薩摩訶薩의 19구의 보살이 그려져 있다. 이러한 菩薩衆의 도상은 거의 같은 양식적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두광은 있으나, 신광은 보이지 않으며, 연화좌 위에 입상으로 그려져 있다.

23) 「大方廣佛華嚴經世主妙嚴品」제1권에는 揚相法體普賢菩薩摩訶薩, 淨德妙光菩薩摩訶薩이라는 두보살은 菩薩衆에 기록되지 않고 있다. 揚相法體普賢菩薩摩訶薩에 있어서 德相은 사전적인 의미로 무상·무아와 같이 일체에 통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체에 통하는 法體로서 보현은 보살행을 닦는 총체라는 의미로 기록된 듯하다. 淨德妙光菩薩摩訶薩이라함은 보덕으로서 지혜의 빛으로 온세상을 비추는 보살로 이 역시 보현보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神衆

이러한 菩薩衆에 이어서 그려진 神衆은 보살중과는 달리 양식적으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어 대단히 흥미롭다. 뿐만 아니라 19구의 天神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각 천신들마다 13구의 천신의 명호를 나열한 후, 해당 천신의 도상은 맨 마지막에 「毘盧遮那〇〇神」이라고 기록된 위에만 그려져 있다. 금강신의 예를 들면 금강신의 13종류의 명호를 기록하고 맨 마지막으로 「毘盧遮那金剛神」이라고 기록한 위에다 도상을 그리고 있다. 그러므로 각천신은 13천신의 명호를 기록하고 있지만 도상은 1점만 그려져 있다. 또한 「世主妙嚴品」의 기록에는 보이지 않는 南無無量□□□천신 혹은 천왕이라는 기록이 제일 앞에 나오는데 이는 무한한 그 종류의 천신 혹은 천왕이 귀의 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신중은 먼저 「大方廣佛華嚴經世主妙嚴品」 제1권 경전에 나타나는 19종의 천신이 나타나고 있다. ①金剛神은 일반적으로 집금강신 혹은 인왕이라고도



<도 7> 비로자나집금강신



<도 7>의 세부



<도 8> 비로자나신중신과 족행신

한다. 도상은 두 손으로 金剛杵를 쥐고 있는 형상으로 분노형이다. ②身衆神의 도상은 향아리를 안고 있는 형상인데, 이는 쟁향아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③足行神의 도상은 向左手에는 연화를 들고 있고 向右手에는 등잔을 들고 있다. 연화는 清淨華界的 忍 바라밀을 뜻하고, 등잔은 微妙光 즉 범광을 나타내



<도 9> 도8의 신중신



<도 10> 도8의 족행신



<도 11> 비로자나도량신



<도 11>의 세부

고 있다. ④道場神의 도상은 두 손으로 짐 모양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道場 즉 사원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원을 지키는 신이다. ⑤主城神의 도상은 마치 쟁반 위에 부채를 든 것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이는 성곽을 연이어 그린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⑥主地神은 땅을 상징하는 신으로 도



<도 12> 비로자나주성신



<도 12>의 세부



<도 13> 비로자나주지신과 주산신

상은 산을 이고 있는 모습이다. 산은 땅을 상징하고 있다. ⑦主山神은 산을 관장하는 신으로 도상은 손에 높은 산을 들고 있다. ⑧主林神은 수림의 신이



<도 14>의 세부



<도 14> 비로자나주 립신



<도 13>의 세부

다. 도상은 손에 나누를 담은 쟁반을 들고 있다. ⑨主藥神은 의약의 신이므로 도상은 向右手에 약단지를 쥐고 있다. ⑩主稼神은 農事神 내지는 禾神이라고 해야 하겠는데, 긴 도리끼를 쥐고 있는 형상으로 그려져 농사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⑪主河神은 河川의 신이므로 도상은 옷통을 벗은 모습이며, 두 손으로 노를 들고 있어 배사공임을 알 수 있다. 강물의 신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다.

⑫主海神은 바다의 신으로 도상은 발밑에 파도를 그리고 있다. 向左手에는 여래좌상을 받쳐 들고, 向右手는 위로 들어 여래좌상을 향해 손바닥을 아래로 하고 있어, 항해에 여래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도 15>의 주가신



<도 15>의 주약신



<도 15> 비로자나주 약신과 주가신

⑬主水神은 용왕을 상징하기도 하고 물의 재액을 면하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도상은 向左手는 팔을 올려 연봉을 들고 있고, 向右手에는 물통이 들려 있어 물의 신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 볼 수 있다.



<도 17> 비로자나주해신과 주수신



<도 16> 의세부



<도 16> 비로자나주해신

⑭主火神은 불의 신답게 화염 속에서 있는 형상으로 두 손은 합장을 하고 있다. ⑮主風神은 머리가 하늘로 날리는 형상으로 그려져 바람의 신이라는 것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다. 두 손은 천에다 바람을 싸서 들고 있다



<도 18> 비로자나주화신



<도 17> 의주수신



<도 17> 의주해신



<도 19>의 세부



<도 19> 비로자나주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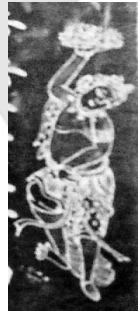


<도 18>의 세부

⑯主空神은 몸을 꼬아 하늘로 막 날아오르려는 형상인데, 얼굴은 아래로 향해 그려져 있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 向左足은 발바닥이 보이게 발을 들고 있으며, 向右足은 땅을 밟고 서 있는 형상 역시 하늘로 날아오르려는 순간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向左手는 꽃을 가득 담은 쟁반을 받쳐 들고, 向右手는 옷자락을 쥐고 있다. ⑰主方神은 검지를 펴고 양손을 교차시키고 있는 형상으로 그려져 있다. 方位를 나타내는 신으로 그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검지를 펴서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불교



<도 20>의 주방신



<도 20>의 주공신



<도 20> 비로자나주공신과 주방신

교리로서는 方은 법을 상징한다.²⁴⁾

⑱主夜神은 두 손으로 불을 들고 있어 밤의 어두움을 밝히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다. ⑲主晝神은 향좌수는 아래쪽 向右手는 위쪽으로 하여 지팡이를 쥐고 있다. 낮의 외출을 상징하는 지팡이로 볼 수 있겠다



<도 22> 비로자나주주신과 이수라왕



<도 21>의 세부



<도 21> 비로자나주아신

마지막 천신인 主晝神 다음부터는 20구의 天王들이 나타나고 있다. 天王들도 천신과 마찬가지로 각각 13구의 천왕의 명호를 나열하고, 도상은 맨 뒤쪽에



<도 23> 비로자나가루라왕



<도 22>의 이수라왕



<도 22>의 주주신

24) 安德菴, 「華嚴經講義」, 佛教通信大學, 242.

「毘盧遮那」를 앞에 붙인 천왕 1구만을 그리고 있다. 경전에 나타난 순서대로 阿修羅王부터 大自在天王까지 그려지고 있다.

①阿修羅王의 阿修羅는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를 八部神衆의 하나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六道의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중의 阿修羅道の 주 존을 뜻하기도 한다.²⁵⁾ 처음에는 생명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졌으나, 후에는 악신으로서 취급되었으며, 귀신을 총칭 하는 말이기도 하다. 도상은 一面에 6 臂로 표현되고 있는데, 맨 아래쪽의 두 팔은 등으로부터 나와 저울질을 하고 있다. 向右手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向左手는 저울추를 들고 있다. 이러한 형상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다. 독으로서 독을 제도한다는 설이 있으니, 조심스럽지만 독을 달고 있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²⁶⁾ 중간의 두 팔은 합장을 하고 있고, 위의 두 팔은 권인을 한 채로 위로 쳐들고 있다.

②迦樓羅王의 迦樓羅는 金翅鳥라고 칭해지기도 한다. 金翅鳥는 龍을 尙食하는 八部神衆의 하나로 人身鳥頭의 형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설에 맞추어 지물을 들고 主空神처럼 向左足은 발바닥이 보이게 발을 들고 있어, 날아오르는 금시조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鳥頭로서 그리지는 않았지만, 두 상 양쪽에 깃털을 그리고 있어, 儀軌에 충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 24>의
긴나라왕



<도 24> 비로자나긴나라
왕과 마후가라왕



<도 23>의
세부

25) 佐和隆研編, 「佛像圖典」, 吉川弘文館, 124

26) 전계서, 「天部の佛像事典」, 東京美術, 昭和 58년, 43.

③緊那羅王 역시八部神衆의 하나로 雪山에 사는 아름다운 음성의 歌神 혹은 음악의 신이다. 아름답게 지저귀는 새를 신격화한 것으로 도상은 현악기를 들고 있다. 緊那羅王은 馬頭人身으로 표현되기도 한다.²⁷⁾ ④摩睺羅伽王은 역시八部神衆의 하나로 大蟒(큰 이무기)을 신격화한 것이다. 蛇頭人神의 형상을 나타내며, 緊那羅와 함께 음악의 신이다.²⁸⁾ 도상은 의궤에 맞춘 듯, 뱀이 상체를 휘감아 천왕의 귀에까지 감겨 올라가고 있다. ⑤夜叉王은 인도



<도 25>의 세부



<도25>비로자나야차왕



<도24>의 마후가라왕



<도 27> 비로자나구반다 왕과 건달바왕



<도 26>의 세부



<도 26> 비로자나대 용왕

27) 상계서, 48.

28) 상계서, 51.

의 신화시대에는 포악한 귀신으로 출발했지만, 불교에 접합 되어 八部神衆의 하나가 되면서 正法守護의 신이 되었다.²⁹⁾ 도상은 向左手에는 석장을 쥐고 向右手에는 화염에 휩싸인 탑을 들고 있어, 정법수호를 상징하고 있다.

⑥ 大龍王은 인도의 신화시대는 뱀을 신격화한 것으로 비를 내리는 마력을 가진 신으로 불교에 접합 되면서 八部神衆의 하나가 되었다. 도상은 持物을 양손으로 쥐고 있는데, 용이 천왕의 등 뒤로 올라타고 아래쪽을 내려다보는 형상으로 그려져 있다. ⑦ 鳩槃荼王은 사람의 혼을 마시는 악귀로 餓鬼衆 없애는 귀신인데,³⁰⁾ 사람의 수면을 방해하기도 한다. 형상은 남녀 두 종류가 있는데, 남신은 鉢을 들고 있으며, 여신은 허리에 북을 차고 있다.³¹⁾ 도상은 얼굴 쪽은 어떤 형상인지 알 수 없으나, 허리에는 큰 북을 차고 양손에는 북채를 들고 있어 여신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의례에서는 馬頭人身형이라고 하는데 이 도상에서도 말갈기가 위로 올라 간 듯한 형상을 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도28>비로자나월천자



<도27>의
건달바왕



<도27>의
구반다왕

29) 상계서, 37-40.

30) 전계서, 『華嚴經講義』, 249-250.

31) 상계서, 49-50. 및 전계서, 『佛像圖典』, 123.

⑧乾闥婆王은 인도의 신화시대에는 물에서 태어난 천녀였지만, 후에 음악의 신이 되었다.³²⁾ 도상은 무장 갑옷을 입고 三叉戟을 쥐고 있다. 儀軌대로 그려졌다. ⑨月天子는 바라문교에서는 달의 광명을 신격화한 것으로 인간의 번뇌와 고통을 없애준다.³³⁾ 도상은 사대부의 관과 의상을 입고 향우로 향하고 있으며, 양손으로 월륜을 들고 있는데 월륜 안에는 두꺼비가 들어 있다.

⑩日天子는 고대신화시대에 일륜을 인격화한 신으로 태양신을 의미한다. 도상은 월천자와 거의 같은 형상으로 일륜을 이고 있는데, 허리를 더 휘어지게 그리고 있으며, 일륜 속에는 삼족오가 들어있다.

이 아래로는 경전의 기록과 같이 釋迦因陀羅大天王, 普稱滿音大天王, 慈目寶髻大天王, 寶光幢名稱大天王, 發生喜樂髻大天王, 可愛樂正念大天王, 須彌勝音大天王, 成就念大天王, 加愛樂淨花光大天王, 智日眼大天王, 自在光明能覺悟大天王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도상은 일일이 그리지 않고 있어, 이것은 天王의 명호가 아니라 무량도리천의 귀의하는 33천왕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도 28>의 세부



<도 29> 비로자나일천자와 비로자나도리천왕



<도 29>의 일천자

32) 상계서, 40-42. 및 전개서, 『佛像圖典』, 152.

33) 상계서, 『화엄경강의』, 252.



<도 30> 비로자나야마천왕



<도 30>의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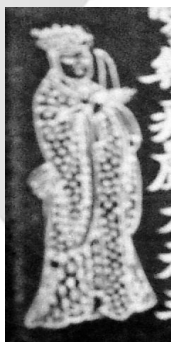


<도 29>의 도리천왕

이어서 ①切利天王이 그려지는데, 유일하게 13천왕을 나열하지 않고 大業法體切利天王, 毘盧遮那切利天王 이라고 기록하고, 毘盧遮那切利天王 위에도 도상을 그리고 있다. 도상은 向左手를 아래로 向右手를 위로하여 幡을 잡고 있는 형상으로 그려져 있다. ②夜摩天王은 焰摩天이라고도 하는데, 인간의 목숨을 빼앗아 가는 죽음의 신으로 지하명계의 지배자다.³⁴⁾ 도상은 向左手는 拳印이며, 向右手 보주를 들고 있으며, 천왕의 머리를 공작이 타고 있다. 이 천왕이 허공을 의지하고 있다는 점³⁵⁾에서 이렇게 그려졌을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도 32> 비로자나화악천왕과 비로자나타화자재천왕



<도 31>의 세부



<도 31> 비로자나도솔천왕

34) 전계서, 『天部の佛像事典』, 159.

35) 전계서, 『華嚴經講義』, 253.

⑬兜率天王은 兜率陀天王으로 喜足天이라고도 하는데 만족의 천왕이라는 뜻이다.³⁶⁾ 向左手에는 鉢을 向右手에는 劍을 들고 있다. ⑭化樂天王은 자신의 거친 성질을 변화시켜 妙樂의 도구로 삼음으로서 스스로 오락하고 하는 신이다. 스스로를 변화시켜 즐겁게 한다고 하여 화락천이라 한다.³⁷⁾ 도상은 向左手에 鏡을 쥐고 있으며 向右手는 瓔珞수보다 약간 내려 그려져 있는데, 의상은 날개 같은 옷을 입고 있다. ⑮他化自在天王은 자기뿐만 아니라 남까지도 즐거움으로 변화시키는 神이다.³⁸⁾ 도상은 向左手는 손바닥을 배 쪽으로 하여 아래쪽에 두고 向右手는 손바닥을 위로 보게 한 형태로 위쪽에 두고 있으며, 의상은 化樂天王과 거의 같다.



<도 33> 비로자나대범천왕



<도 32>의 타화자재천왕



<도 32>의 화악천왕

⑯大梵天王은 일반적으로 범천이라고 이름하며, 帝釋天和 더불어 베다 경전시기에 힌두의 신들로서 비교적 초기에 불교에 습합해 들어온 天이다. 梵天은 힌두의 브라만에 해당한다.³⁹⁾ 귀공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형상은 보통 오른 손에는 戟, 왼손에는 연화를 들고 있는 등 다양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 도상에서는 戟을 양손으로 쥐고 있다. ⑰光音天王은 極光淨勝遍光이라

36) 상계서, 「華嚴經講義」, 254.

37) 상계서, 「華嚴經講義」, 254.

38) 상계서, 「華嚴經講義」, 255.

39) 전계서, 「天部の佛像事典」, 19.

번역되며, 이 天을 光音天이라하는데 이 천에 사는 중생들은 소리를 내어 말하지 않고, 빛으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여 光音天이라 한다. 도상은 두 손을 모아 잡고 있는 형상이다. ⑩ 遍淨天王은 기쁨까지도 벗어나 無生法樂을 얻은 완전히 깨끗한 상태의 천왕이라 하여 이렇게 이름 한다. 도상은 두 손을 앞가슴에 모우고 있으며, 의상은 대범천왕과 비슷하나, 허리가 휘어지게 젖히고 있는 형상이다. ⑪ 廣果天王은 善慧로서 중생을 法寶宮殿으로 교화해야 한다고 하여 이렇게 이름한 것이다. 빛과 관련된 천왕의 명호를 12개 나열하고 毘盧遮那廣果天王이라는 명호 위에다 도상을 그리고 있다. 도상은 의상 등 전체적인 양식이 遍淨天王과 거의 같다. 두손을 합장하고 있다.



<도 34>의 세부



<도 34> 비로자나광음 천왕



<도 33>의 세부



<도35>의 광과천왕



<도 35>의 변정천왕



<도 35> 비로자나변정천왕과 비로자나광과천왕

⑳大自在天王은 摩醯首羅天이라고도 하는데, 힌두의 시바신이 불교에 습합되었는데 호법신으로 질병과 화를 다스리는 신이다.⁴⁰⁾ 도상은 의궤에 따라서 소를 타고 앉은 모습이며, 머리칼은 분노형으로 갈가리 하늘로 곤두 서 있고 팔은 八臂이다. 가장 아래의 두 팔은 아래로 내리고, 그 다음의 두 팔은 합장을 하고 있으며, 그 위쪽의 두 팔은 위로 쳐들고 있으며, 그 위쪽의 두 팔도 역시 위로 쳐들고 있다.



<도 36> 비로자나대자재천왕과 선재동자구법선지식



<도 36>의 대자재천왕



<도 37> 선재동자구법선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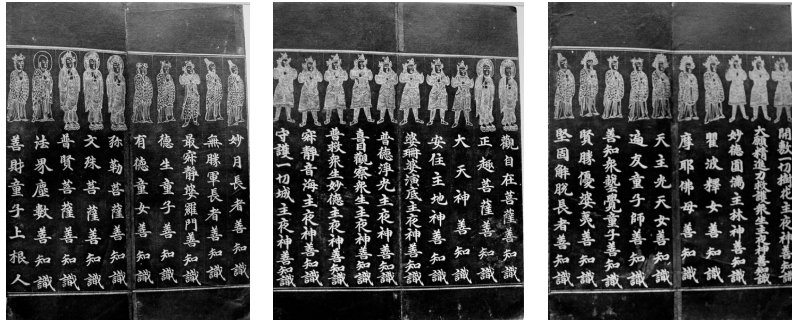


<도 38> 선재동자구법선지식

40) 상계서, 『天部の佛像事典』, 212-216. 전계서, 『佛像圖典』, 151.

다) 善知識의 菩薩, 比丘(優婆塞), 優婆夷

이들 신중들에 이어 바로 「入法界品」의 선지식들이 그려지고 있는데, 아래 쪽에 명호가 기록되고 있다.



<도 39> 선재동자구법선지식

구법의 길에서 선재동자가 친견한 선지식은 55명이다. 그러나 선재동자가 제일 먼저 문수보살을 친견했고, 54번째 다시 친견한 선지식이 문수보살이라는 점과 51번째 德生童子와 52번째 有德童女를 한 장소에서 만났으므로 장소로서는 53개소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55善知識에 장소로서는 53개소가 된다. 그러므로 55구 혹은 장소로 나타낸다면 53개소로 그려져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경에서는 전부 64구(41)가 그려져 있어, 55선지식 이외

- 41) 普賢菩薩摩訶薩, 文殊師利童子摩訶薩, 法慧菩薩摩訶薩, 功德林菩薩摩訶薩, 金剛幢菩薩摩訶薩, 金剛藏菩薩摩訶薩, 普賢摩訶薩摩訶薩, 文殊菩薩摩訶薩, 德雲比丘善知識, 海雲比丘善知識, 善住比丘善知識, 彌伽長者善知識, 解脫長者善知識, 海幢比丘善知識, 休捨優婆夷善知識, 毘目瞿沙仙人善知識, 勝熱婆羅門善知識, 慈行童女善知識, 善見比丘善知識, 自在主童子善知識, 具足優婆夷善知識, 明智居士善知識, 法寶髻長者善知識, 普眼長者善知識, 甘露火王善知識, 大光聖王善知識, 不動優婆夷善知識, 遍行外道善知識, 優鉢羅華長者善知識, 婆施羅船師善知識, 無上勝長者善知識, 師子奮訊比丘善知識, 波須密女善知識, 鞞瑟胝羅居士善知識, 觀自在菩薩善知識, 情趣菩薩善知識, 大天神善知識, 安住主地神善知識, 娑珊婆演底主夜神善知識, 普德淨光主夜神善知識, 喜目觀察衆生主夜神善知識, 普救衆生妙德主夜神善知識, 寂靜音海主夜神善知識, 守護一切城主夜神善知識, 開敷一切樹花主夜神善知識, 大願精進力救護衆生主夜神善知識, 妙德圓滿主林神善知識, 瞿波

에 9구가 더 그려졌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더 그려진 9구는 상술한바와 같이 善財童子가 친견한 55선지식은 문수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사경에서는 普賢菩薩摩訶薩과 文殊菩薩摩訶薩을 먼저 한 번 더 그린 후, 法慧菩薩摩訶薩, 功德林菩薩摩訶薩, 金剛幢菩薩摩訶薩, 金剛藏菩薩摩訶薩 그렸고, 맨 마지막에 法界塵數善知識, 善財童子上根人을 그려, 8구가 늘어나게 되었고, 또다시 문수보살 앞에 보현보살을 한 번 더 그림으로써 총 9구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도 40> 보살선지식
중 일부



<도 41> 문수사
리동자 선지식



<도 42> 비구선지식
중 일부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을 제일 먼저 그린 것은 「入法界品」의 도입부분에서 500의 보살과 함께 있는 보현보살, 문수보살을 그린 것이고, 法慧菩薩摩訶薩과 功德林菩薩摩訶薩은 聽法에 참석한 많은 보살들이 여래의 지혜와 미묘한 공덕은 어떤 것인가에 의문을 풀기 시작한 보살들을 상징한 것으로 보인다. 金剛幢菩薩摩訶薩, 金剛藏菩薩摩訶薩은 「入法界品」에 나타나는 菩薩衆과 金剛神衆 神衆神들 중에서 金剛神衆 신앙과 연결하여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현보살을 기록하고 그려 낸 것은 「入法界品」전개과정에서

釋女善知識, 摩耶佛母善知識, 天主光天女善知識, 遍友童子師善知識, 善知衆藝覺童子善知識, 賢勝優婆夷善知識, 堅固解脫長者善知識, 妙月長者善知識, 無勝軍長者善知識, 最寂靜婆羅門善知識, 德生童子善知識, 有德童女善知識, 彌勒菩薩善知識, 文殊菩薩善知識, 普賢菩薩善知識, 法界塵數善知識, 善財童子上根人

열명의 보살들의 찬탄이 끝난 후, 다시 보현보살이 나와서 그곳에 모인 대중들에게 사자분신삼매를 설명한 것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⁴²⁾ 法界塵數善知識은 「華嚴經」에서 티끌 같은 보살이라고 표현을 자주하고 있는데, 「入法界品」에 나타난 법계의 모든 성중을 뜻하는 의미로 경전의 내용을 그대로 命名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도 45> 왕선지식



<도 44> 우바이 선지식



<도 43> 장자선지식 중 일부

선재동자가 만난 선지식의 형상은 보살, 왕, 비구, 우바이, 장자, 천신, 선인 등 몇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표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菩薩의 도상은 보관이나 의상 포즈 등이 거의 같은 양식이다. 다만 두 번째 그려진 문수는 그러니까 55선지식으로 지일 먼저 만난 선지식인 문수는 ‘文殊師利童子善知識’이라는 명호와 같이 머리를 양쪽으로 상투를 만든 형상으로 그려져 문수동자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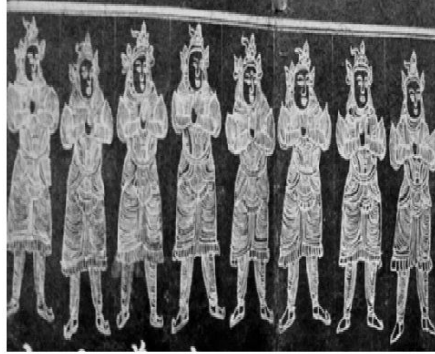
王들의 표현은 면류관이나 관모를 쓰고 있어 왕의 형상으로 그려져 있다. 大光聖王善知識의 면류관이나 甘露火王善知識의 관모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다. 比丘(優婆塞)는 두광 안에 僧形으로 표현된 두부나 의상, 합장한 수인 모두가 거

42) 전게서, 「華嚴經講義」, 636-637.

의 같은 양식이다. 같은 남성 선지식이라도 童子는 머리를 묶은 아이형상으로 그려진다. 마지막에 그려져 있는 선재동자도 같은 양식으로 그려져 있다.



<도 47> 동녀선지식들



<도 46> 주야신선지식

優婆夷나 천녀 등은 화려하고 높은 관을 쓰고 있는 점이라든지 두 손을 의상 속에 넣어 감추고 있는 점, 의상의 양식적 특징 등이 거의 같다. 그러나 같은 여성 선지식이라도 童女는 양식적으로 틀린다. 역시 아이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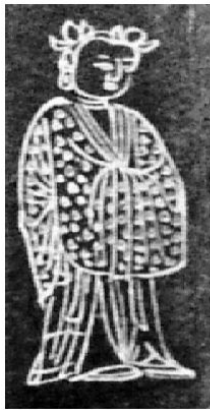
遍行外道善知識과 婆施羅船師善知識은 다른 선지식과는 두발의 표현이 다르다.

長者의 모습은 늙은 노인의 형상으로 그려져 있다. 그러나 居士는 같은 노인형상을 하고 있어도 두부의 형상이 장자와 구분하기 위해 장자와는 차별지게 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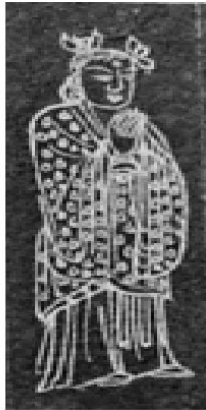
열렬바라문, 주야신, 주지신, 주립신, 천신 등은 무장형으로 그려지고 있다.

仙人은 머리를 뒤로 묶은 형상으로 의상도 다른 상들과는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선지식은 보살, 왕, 비구, 우바이, 장자, 동자 동녀들은 그 표현 양식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전부 다르게 그린 것이 아니라 그룹으로 차별성 있게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 49> 선재동자



<도 48> 동자선지식

4. 결 론

이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이 경전은 고려시대의 기복사상의 일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경이라 할 수 있다. 『大方廣佛華嚴經行員品』과 『大方廣佛華嚴經世妙嚴品』의 변상양식은 이미 그 예가 있어 그대로 그려진데 비해, 신중합부의 내용은 아주 독특한 양식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신중신앙의 기복적 성격을 강하게 나타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사경이 제작되던 시기에 신중신앙이 성했던 것과 더불어 화엄학도 염불신앙이나 신비주의적인 면으로 치우쳐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도상에 있어서는 특히 천신은 명호에 맞게 그려졌으나, 천왕은 교리의 내용을 알아야 그 도상을 해석 할 수 있게 직접적으로 그 형상을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특징 중에 하나다.

그러나 이들 천신이나 천왕들은 보살중이나 선지식보다는 개별적인 특징을 표현함에 있어 많은 신경을 써서 그렸다는 점을 이해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바로 선지식을 전부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선지식을 전부 그려냄으로서 결국 이 경전이 『大方廣佛華

嚴經行員品」에서 귀결점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 할 때, 「大方廣佛華嚴經」의 핵심내용인 「입법계품」은 구법의 要諦로서 신앙의 중심에 있었고, 신중사상은 복을 빌고 재앙을 면하게 해 달라는 원을 성취하기 위해 또 다른 의미에서 신앙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이 사경의 표제를 통해 엿볼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참고문헌>

「高麗史」

김원룡. 「韓國의 美, 8」. 서울: 중앙일보사, 1981.

孫姝延. “至正10년 발원 고려사경 「華嚴經行願品神衆合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0.

安德菴. 「華嚴經講義」. 서울: 佛敎通信大學, 1993.

李道業. 「華嚴經思想研究」. 서울: 民族史, 1998.

錦織亮介. 「天部の佛像事典」. 동경: 東京美術, 1983.

佐和隆研 編. 「佛像圖典」. 동경: 吉川弘文館

中吉 功 編. 「海東の佛敎」. 동경: 國書刊行會, 1973.

к с і